

# 순천시, 민선7기 후반기 그린 뉴딜 대표도시로 도약

지역경쟁력 강화 '3E 프로젝트' 사업들 성과  
생태·교육 기반 '순천형 포스트 코로나' 대비  
허석 시장 "살기좋은 도시 만드는데 힘 쏟을 것"

순천시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3E 프로젝트 역점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며 한국판 뉴딜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시는 생태와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잇는 3E 프로젝트를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연계해 순천형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각오다. 최근 3E 프로젝트 역점 사업들이 정부의 승인을 득하는 등 결실을 맺으면서 남은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그린뉴딜의 선두주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승인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원산업 재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지난 7월 29일 공식 승인 받았다.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도시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국제적인 그린뉴딜 대표 도시로 비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숲정원, 마을정원, 습지정원, 해안정원, 국가정원 리뉴얼의 5개 전략을 갖고 개최할 이번 박람회는 경제적 파급효과 1조 5천여 억원, 양질의 신규 고용창출 2만명과 800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돼 정부 그린뉴딜 실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 임대아파트 추진 탄력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사업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순천시청 인근 조곡동 일원에 약 120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의회 승인 절차와 LH와의 업무협약 등을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 2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7월 착공, 2022년말 준공하여 젊은 층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 ▶ 순천 매실,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지구 선정



조곡 행복주택 조감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는 지난 7월 순천매실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올렸다. 순천매실 융복합산업지구는 낙안읍성 일대를 거점지구로 매실 주산지인 월등·황전면, 승주읍 등 5개 읍면동을 연계해 농축산업지원과 체험관광객의 융합사업을 추진해 2023년까지 매출액 158억원, 일자리 창출 200여명, 관광객 30만명 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국비 50억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발효식품산업 연구개발과 융복합산업화 기반을 조성 중이다. 남해안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상품개발과 마케팅, 시제품 개발, 창업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순천시는 이번엔 선정된 순천매실 융복합산업지구와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연계·활용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로 발효식품산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순천매실 선별 작업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 전반기는 포용과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하반기 2년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정원박람회를 통한 그린 뉴딜 대표 도시로 부상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일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번길 7

회 장 · 발 행 인 · 편 집 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